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79
----------	-----

2012년 6월 26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년 6월 18일,

김명신 · 김상현 · 김종욱 · 김형태 · 서윤기

윤명화 · 최보선 · 최홍이 의원 외 38명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2년 6월 26일 상정, 원안 가결)

2. 주문

-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일제고사)를 2008년부터 전수시행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하며,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지향하는 서울교육의 방향에 배치됨에 따라 일제고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표집실시할 것을 촉구함.

3. 제안이유

- 평가는 교육과정의 일부로써 교육목적인 전인격적 성장을 위한 수업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전국단위의 일제고사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양산할 뿐 아니라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학교와 교사에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교육에 부합되지 않음.
- 현재 시·도교육청 평가의 지표 중 일제고사에 의한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16개 시·도교육청에 최대 1,0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력중심 경쟁교육은 시·도교육청간 성적경쟁을 불러와 가뜩이나 대입경쟁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학생자살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평가란 그 결과를 통해 학생 본인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야 하는데 일제고사는 종단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능력향상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음.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평가가 아니더라도 본인과 담당교사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 약 1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일뿐더러 지난 몇 년간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시행 결과가 교육 현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음.

- 학습 부진아의 지도는 반복된 시험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대화'와 '관계'의 형성과정에서 일어나야 하며, 많은 경우 학습부진은 빈곤에 의한 제반 여건의 결핍이 그 원인임. 따라서 전수평가에 쓰이는 막대한 예산은 빈곤층에 지원해야 하는 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표집 실시할 것을 촉구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성용)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교과목표와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 시험으로,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임.
-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및 교수학습 강화를 위한 기초 정보를 마련하며,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며, 2000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 하에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1998년 이전에는 전국의 해당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하다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3~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표본집단) 학업성취도 평가로 전환하였음.

- 그러다가 2008년부터 다시 전국 해당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일제히 치르는 전수평가로 바뀌게 되었고, 평가 결과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교과별로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의 4단계로 성적이 표시됨.¹⁾

○ 동 결의안은 2008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고사로 전환된 이후 학교서열화, 성적지상주의에 의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등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8년 이전의 표집형 평가로 전환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동 평가가 6월 26일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안건은 결의안으로서 그 실효성과 시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현재 각 학교들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 학교시설 및 규모, 교직원의 구성, 학생들의 사회계층배경 등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학교 안의 교육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적절한 분석 없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통해서 단위학교를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음.

1) 2010년부터는 학교별 응시현황 및 과목별 성취수준 3단계 비율(보통학력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을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시하도록 되었다.

2008년 이후의 전국단위 평가방법

년도	평가명	대상	과목
2008	전국연합 진단평가	중학교 1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	초등학교 4~6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초등학교 3학년	읽기, 쓰기, 기초수학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중학생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	중학교 1,2학년	
2009	교과학습 진단평가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초등학교 3학년	읽기, 쓰기, 기초수학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	중학교 1,2학년	
2010	교과학습 진단평가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2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초등학교 3학년은 국어, 수학)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고등학교 2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	중학교 1,2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2011	교과학습 진단평가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2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초등학교 3학년은 국어, 수학)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

- 평가방법은 평가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만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이 학생 개개인의 교수 학습과 진로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개별 학교의 교육 효과 파악, 교육과정의 정착 정도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평가의 목적이 국가 단위의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의 파악에 있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내어 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평가 방법 내지는 교수 방법을 선도하기 위함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표집형의 경우 전체적인 경향은 알 수 있으나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얻을 수 없으며, 전수형의 경우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얻을 수 있으나 학교, 학생, 교육기관의 서열화에 따른 압력과 평가결과가 국가의 특별교부금 지원 기준에 활용되는 등 보상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879
----------	-----

발의일자 : 2012. 6. 18.

발의자: 김명신·김상현·김종욱·김형태·서윤기·
윤명화·최보선·최홍이 의원 외 38명

1. 주문

-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일제고사)를 2008년부터 전수시행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하며,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지향하는 서울교육의 방향에 배치됨에 따라 일제고사를 전면 재검토 하고 표집실시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평가는 교육과정의 일부로써 교육목적인 전인격적 성장을 위한 수업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전국단위의 일제고사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양산할 뿐 아니라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학교와 교사에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교육에 부합되지 않음.

- 현재 시·도교육청 평가의 지표 중 일제고사에 의한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16개 시·도교육청에 최대 1,0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력중심 경쟁교육은 시도교육청간 성적경쟁을 불러와 가뜩이나 대입경쟁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학생자살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평가란 그 결과를 통해 학생 본인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야 하는데 일제고사는 종단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능력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없음.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평가가 아니더라도 본인과 담당교사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 약 1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큰 죄를 짓일뿐더러 지난 몇 년간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시행결과가 교육현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음
- 학습 부진아의 지도는 반복된 시험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대화’와 ‘관계’의 형성과정에서 일어나야 하며, 많은 경우 학습부진은 빈곤에 의한 제반 여건의 결핍이 그 원인임. 따라서 전수평가에 쓰이는 막대한 예산은 빈곤층에 지원해야 하는 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표집 실시할 것을 촉구함.

3. 이송처 : 교육과학기술부

첨부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 결의문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 결의문

5년째로 접어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로 인해 학교 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일제고사)가 전수평가로 시행된 것은 2008년부터이다. 그 전까지는 표집으로 실시되었고 따라서 파행사례도 학부모 단체 및 교원단체와의 마찰도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갑작스럽게 일제고사를 전수평가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인 예산 지원을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제고사를 실시하며 내세우는 목적은 “학생 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강화 기초 정보 마련,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이다. 그러나 전수 실시하는 일제고사는 위의 목적을 왜곡시키거나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다.

많은 경우 학습부진은 빈곤에 의한 제반 여건의 결핍이 그 원인이고 인지나 정서 발달 장애와 관련이 깊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반복적으로 자주 보는 것은 학업부진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강화 기초 정보도 마찬가지다. 교수학습을 위한 기초 정보는 국가단위로 실시하는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급에서 담당교사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진단평가에 의해 충분히 그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일제고사를 실시할 이유는 없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표집만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1년 1월에 발간한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2009 결과’ 및 보고서를 보면 “학생 유치를 위해 학교간 경쟁구도를 조성하는 국가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했다. 즉, 일제고사는 학벌에 의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할이 과도하게 결정되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격차와 불평등만 높일 뿐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혁신학교에서는 수업 혁신과 이에 따른 평가의 혁신을 추구하며 과정형 평가, 교사별 평가를 지향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수준에서 실시하는 일제고사는 혁신학교의 새로운 교육 문화 형성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서울시의회는 교육의 근본이념을 실현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와 단위학급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자체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일제고사에 사용되는 125억을 소외계층과 인지정서 발달 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제고사를 실시하며 제시하는 목적은 표집실시만으로도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일제고사를 표집실시하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줄 것을 촉구한다.

2012. 6.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